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박민정집사(하운 하랑) 가정이 29일(금) 출국, 1년간 미국을 다녀옵니다.
- 임요섭(임채정선교사) 청년이 25일(화) 군에 입대합니다.
- 김선한(멋쟁이학교 졸업생) 청년이 21일(목) 제대하였습니다.
- 이어직 집사 수술이 26일(화)에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 주세요.
- 생활공동체 교육모임이 28일(목) 저녁 8시에 화상으로 모입니다.

< 연령별사랑방 교사: 교역자 부장 생활지도 교사 >

꾸러기사랑방: 장영미 최연우

어린이사랑방: 장성아 김중필 권수현 석지인

푸른꿈사랑방: 이어진 이돈희 최신혜 우창숙 조운계

늘푸른사랑방: 권재만 공 화 이충환 강춘자

젊은이사랑방: 정재훈 최기찬 박태규 전경희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4 호

2021년 1월 24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거목들 사이에서 노래하렵니다

몇 해 전 김영봉 목사님의 [사권의 기도]라는 기도예 관한 책을 읽고 큰 감동과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예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보다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읽게 된 책이었는데 다 읽은 후에도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단순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 이끄는 대로 여러 형태의 기도를 신실히 해나갔습니다.

묵상기도, 침묵기도, 금식기도, 호흡기도 등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은 '사권의 기도를 위한 아홉 가지 도구' 라는 장에 속에 있었습니다. 각 기도마다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중 마음을 사로잡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거목 사이를 걸으니 내 키가 더 자랐다'

이 부분은 거목 즉, 믿음의 선조와 선배님들의 기도문을 통해 기도하는 법을 권하고 알려주는 장이었습니다.

거목들의 기도문 기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주셨는데 첫째는 '주기도' 둘째는 '시편 기도' 세 번째는 '모범 기도문'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번 2021년부터 새로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데 특히 세 번째 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구절에서는 수십 번을 반복하며 간절히 바라고 바라며 기도하게 됩니다.

요즘 성서일기 말씀인 시편은 정말 시중에 시요, 노래 중 노래입니다. 구구절절 어쩔 그렇게 우리네 심정을 그렇게도 잘 드러내 줄까요. 시인의 고백을 소리 내서 읽다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새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주요 시편은 암송하기도 하고, 찬양을 찾아서 듣고 부르기도 하면서 기도합니다.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면 상했던 마음이 위로를 받고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바로 세우게 됩니다. 주기도문과 시편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는 일반적

으로 많이 하는 기도인데 세 번째 모범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조금 낮설기도 하고, 다른 분들의 기도를 내가 내 기도처럼 해도 되나 싶어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책 속에 소개된 기도문을 따라 마음에 담고 기도하다 보니 좁은 시야가 넓어지고, 기도문을 남겼던 시대를 공감하며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키가 한층 자라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특히, 전에도 나눴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문은 저에게는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었으며 지금은 저의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치는 모진 질고여

너의 강한 세력으로 나를 쳐보라

모진 질고의 내면에 묻혀 있는 신애(神愛)의 진리를 맞보리라.'

어떤 노래의 후렴구처럼 반복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기도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꼭 이 기도문이 생각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꼭 맞보리라는 다짐을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생각하면 더욱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지금 우리는 홀로 서서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 시켜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고, 자신과의 싸움은 치열해지며 영혼을 살피우는 일은 절박해집니다. 이때에 주기도문을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 시편으로 노래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의 거목들이 남겨 놓은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한층 성장시키고 단단하게 해줄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제자들의 주기도와 끊임없이 찬양하셨다며 부른 시인들의 시편. 그리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오늘도 기꺼이 기도하며 노래하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
<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시편 20편

제목 : 우리에게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

인도 : 정재훈 전도사

찬송 : 390 412 405 321 327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절~5절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6절~9절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2. 내용의 의미(Why)

시의 전반부는 시인이 왕을 위해 드리는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기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주시며 때로는 그 구원이 승리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힘으로 맞서 이기는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에 자기희생을 통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3. 의미의 적용(How)

- ① 이웃과 지도자를 위해 중보 기도하자.
- ②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관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자.
- ③ 자기주장보다는 자기희생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성취하자.
긍정적인 자세, 마음, 말을 하자.

성서일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말씀 중에서 이보다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내 자녀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분주한 일상 곳에 살다 보면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적들과 대신 싸우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배반하여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한숨까지 들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탄짓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모든 공급의 원천이 되시며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순종하고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우여곡절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록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지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라는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님, 자녀를 사랑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을 품고 당당히 살아가는 부모되길 소망합니다.

차영희 [자녀를 살리는 부모기도] 중 1월 24일.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목사
설교자 : 정태일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편 150 : 1-6
21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5 : 24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438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사도행전 16 : 22-34
254

설교자
사랑방

“ 한밤중에 찬양하십시오 ” 정태일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549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55(3)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이용신, 진정행 / 봉헌위원 : 이윤희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사람들을 지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에도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셔서,
찬양생활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한밤중에 찬양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하였다. 바울과 실라는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중, 귀신들려 점보는 사람을 고쳐준 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며, 간수는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 밤에 차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25>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과 차꼬가 풀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찬양으로 극복하였다. 바울과 실라에게 “한밤중”은 단순한 시간의 의미만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신체적으로 부자유하고, 심리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신앙적으로는 복음선교에 큰 장애를 만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놓임을 받았고, 간수와 온 가족은 구원을 받았으며, 선교는 권위를 회복하여 계속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찬양하십시오. 신앙의 위기, 신앙에 대한 회의와 교회생활을 멀리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찬송가를 차례대로 부르며 찬양하십시오.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질 때, 기도가 안 되고 성경을 읽을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 마음에 닿는 찬송가를 가사를 반복 묵상하며 찬양하십시오. 삶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질병, 경제, 관계 상처, 분노, 불안 등) 평소에 좋아하던 찬송가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큰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이어람 집사

무지개를 기다리면서

어머니께서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확인되어 2주 동안 자기격리로 지내셨습니다. 신정에 한번 내려가려고 생각했던 일정을 취소하고, 공동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른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서른까지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약한 몸에 가난한 가정은 딱히 미래라는 것을 그려보기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는 부모님을 두고서 학교를 다닌다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중학생 시절도 있던 것을 보면, 힘들긴 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그토록 치열해졌습니다.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놓였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사회를 너무 일찍 읽어버려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 라는 간단한 명제가 전혀 신빙성 없게 들렸습니다. 조금은 떠버린 채로 스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은 의미였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삶을 사는 것도. 서른이 마지막이라고 가정한다면, 의미가 없다면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서 의미를 찾기로 결정해서 왔던 신학교는 그런 면에서 손해 보는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는 이와 함께하게 되었고, 제 삶의 조건은 조금씩 더 복잡해졌습니다.

중국, 독일, 네팔 등 돈으로 살 수 없었던 의미 있는 여행들을 했고, 탈북민, 소수자, 장애인 등 약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게 하나님나라는 가장 연약한 이들이 행복해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사역도 무사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도움을 요청받아서 갔던 사역지와 선교지, 교육지가 아닌 사랑방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3년차에 들어섰습니다.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른이나 되어서 부모님께 힘이 되지 못하는 것도, 작가라는 명칭을 만지작거리면서 작품 활동을 못하는 것도, 다들 자리 잡고 후반전을 준비하는데 하며 비교하는 모습도, 사랑방이라는 곳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도.

저는 전반전에 교체해서 나갈 선수 정도로 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전반 추가시간까지 뛰게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작 저 같은 인간을 후반전에 쓰실지 의문입니다만, 오늘은 어머니께서 무사히 음성 판정을 받으셨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일이라는 친구에게 노아가 보았던 무지개나 달아달라고 부탁해봐야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돈희 청년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이사야 9:2-5

인도 : 최기찬 전도사

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기도>

아프가니스탄에서 폭력 유혈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17일 여성 대법관 2명이 출근길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 국방부가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의 수를 4500명에서 250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이틀 후에 발생했다. 아프가니스탄 대법원이 테러의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2월 테러범이 대법원 밖에서 자살폭탄테러를 저질러 최소 20명의 대법원 직원이 사망하고 4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개혁자들을 위한 기도>

(1) 1월 27일에 열리는 재판(송강호 대표)에서 차가운 법조문이 아니라 인간의 동기와 상황을 참작하는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2) 샘터가 추운 겨울을 잘 견디고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지체를 위한 기도>

(1) 추위진 날씨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노인, 외국인 등)

(2) 졸업과 다음 과정을 위해 준비하는 지체들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지난 주는 날씨가 많이 풀어졌습니다. 한파가 물러나면서 주 중에 겨울 비가 내렸습니다. 포근해진 날씨에 촉촉한 비가 내리니, 그간 얼어붙었던 땅이 많이 풀리고, 쌓여서 얼었던 눈들도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곧 봄이 올것 같은 기세입니다. 사랑방공동체 학교는 학교별로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 덕분에 정말 한적하게 지내고 있지만, 2월이 되면 사람들과 학생들로 더욱 활기가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생활공동체 식구들도 각기 처소에서 맡은 일들을 각자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신 장로님 가정의 셋째 이어직 집사가 다리 치료 때문에 월요일에 입원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동체 식구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정재훈 전도사>